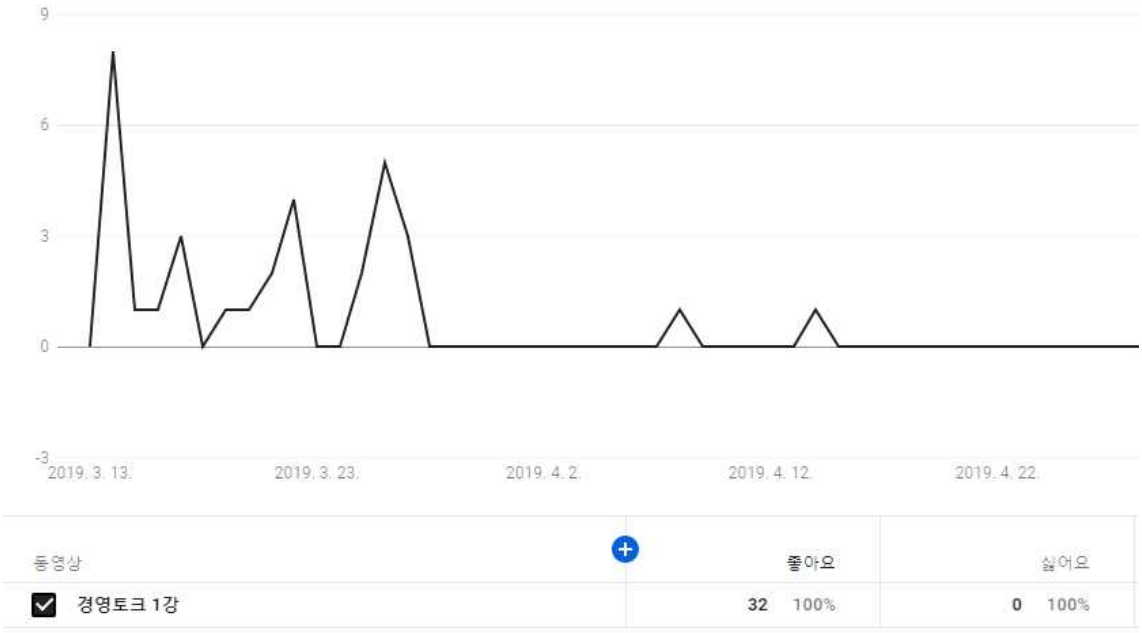
가천대학교

Teaching Portfolio

I. 경영학 입문 (경영토크)

1. 교과목 개요

학수번호		분반		교과목명	경영학입문		
학점	3 학점	담당교수		수강대상 및 인원	1 학년, 120명		
시간	3 시간						
관련 핵심 역량	의사소통(20)% 문제해결(30)% 경영전공지식(50)%						
교육 목표	• 기업, 경영자, 경영행위의 본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경영학의 발전과정 및 주요 이론에 관한 지식을 갖춘다 • 변화하는 기업환경을 이해하고, 경영, 경제 관련 뉴스에 대한 관심도를 높인다 • 경영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능력을 배양한다 • 경영학 전공자로서의 기초적인 지식과 이론을 갖춘다 • 미래의 경영자로서 갖추어야할 비즈니스 마인드와 통찰, 윤리적 품성을 기른다 •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계획화 할 수 있다 • 독서를 즐거워 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있게 발표할 수 있다						
교육 내용	• 경영과 경영자 • 경제와 경영 • 글로벌 환경에서의 경영 • 기업조직의 유형 • 창업과 기업가 정신 • 생산운영관리 • 인적자원관리 • 마케팅						
교수 방법	경영학입문은 강좌의 특성상 경영학의 여러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룬다. 따라서 경영학 각 분야의 전공 교수들이 참여한다면, 학습의 질을 제고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영상세대인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몰입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텍스트 위주의 교재와 더불어 영상자료를 제공하여 학습의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에, 본 강좌에서는 글로벌 경영학과 교수들이 참여하는 영상자료 [경영토크]를 자체 제작하여 수강생들의 선행학습과 토론 자료로 활용하였다. 선행학습을 위해 매주 [경영토크]를 시청한 뒤, 동영상에서 제시하는 토론 질문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수업시간에 이에 대한 보충적 토론을 실시하였다.						
해당	[경영토크] 동영상에 대한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수강생의 수는 100여명 남짓이었으나, 유						

교과의 교육혁신 기여도	튜브를 통해 제공된 동영상은 많게는 1,000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여하였다. 이는 본 강좌를 수강하는 수강생 뿐 아니라, 경영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과 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러한 경험은 영상세대인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흥미를 제고했을 뿐 아니라, 텍스트에 비해 적은 노력으로 전공학습의 효과를 배가 시켰다고 평가된다. 또한 영상내용에 대한 토론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과 비판적 사고능력을 제고하였으며, 전공 교수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소개가 이루어진 부가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교재 (수업 자료)	[경영토크]의 텍스트: 김병도 (2016), 경영학 두뇌, 해냄 [경영토크] 동영상 총 10편 (한회당 30-40분 길이)
학습자 분석	학습자들과의 소통은 매주 부과되는 [경영토크] 토론을 포함한 주간학습보고서를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유튜브 동영상에 달린 '좋아요'와 댓글을 통해 학습자들의 요구와 반응을 살필 수 있었다. 
학업 성취 평가 방법	• 매주 제출하는 주간학습 보고서 평가 (20%) • 수업시간을 통해 이루어 지는 토론 참여율 반영 (20%) •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경영토크] 동영상 내용 출제 및 반영 (지필고사) (40%)
해당 수업의 특성 (타수업과의 차별성)	동영상으로 강의하고 수업시간에 보충적인 활동을 진행하는 기존의 플립러닝 방식을 개선하여, 여러 전공의 교수들이 참여하여 협력 강의(team teaching)를 실현하였음 본교 및 타 학교의 [경영학 원론] 강좌에서는 결코 시도된 바 없는 혁신적인 교수법의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이번 학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자체 교재 출판(현재 집필 중)하고 추가적인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할 예정으로 있음

2. 주차별 수업내용

▣ 3 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 경영, 이익, 시장 등 기본 개념을 정의한다 ▶ 경영의 주요 참여자들과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한다 ▶ 경제 시스템의 종류를 이해한다
주차 학습성과	▶ 경영학 입문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한 이해 ▶ 경영과 시장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증진

(3)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조성준, 한주희, 이재람 교수가 제작한 [경영토크] 동영상 1회분 시청	• 참고도서(경영학 두뇌) • 경영토크 동영상	30분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교수자가 강의를 한뒤, 학습 정리 시간을 이용하여 동영상에서 제시한 문제 토론 (무작위로 지정하는 방식)	• 참고도서(경영학 두뇌) • 경영토크 동영상	30분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각자 집에서 주간학습 보고서 작성	• 경영토크 동영상	50분

[경영토크 동영상 대본 (일부)]

수업목표

자 그래서 이번 이 한 학기 동안의 수업을 통해서 생산과 교환이라는 그런 인간의 활동 그 다음에 조직이 탄생하고 그 조직이 발달한 진화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가장 첫번째 수업 목표가 되겠고요. 자 두번째 인류의 역사발전. 인류의 역사 발전은 결국 경제활동의 발전의 역사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류역사발전과 경제활동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또 다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자본주의가 형성 되어온 배경, 자본주의에 대한 사상, 비판 논리,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살고있는 이 체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니까요. 다음은 자본주의와 시장 질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주체는 무엇이냐 바로 기업이겠죠. 이 기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출현했으며,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기업이 목적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인간의 활동 그것이 바로 경영 아니겠습니까? 경영과 기업의 역동성이랄까요?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탄생 배경, 그리고 이 기업에 관한 사상과 이론까지. 기업을 둘러 싼 기업의 본질, 운영 원리, 배경, 이론 이런 것을 좀 폭넓게 학습해보고자 합니다.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께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뭐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아마 그 인생의 삶에 있어서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나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 인생 목표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 뿐만이 아닐 거예요. 옛날 원시인에게 질문을 했더라도 아마 같은 답을 했을지도 몰라요. 사람은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가지 노력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산다면 행복할 것 같기도 한데, 인류는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어디서 어떨 때 가장 행복합니까?라고 묻는다면 영적인 평화를 얻었을 때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사람들은 종교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의 힘. 기독교, 불교 여러가지 종교가 있잖아요? 그 종교가 결국 뭐죠? 영적인 평화. 마음의 평화를 신으로부터 얻어 보려는 결국 행복해지려는 그런 노력,표현이라고 볼 수 있게습니다. 영적인 평화를 얻음으로써 행복해지려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즐겁게 사는 것. 이럴 때 제가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혼자 있을 때 절대 행복을 느낄 수 없어요.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때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렇기때문에 인간의 사회성.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인간의 사회성을 함양시키고 인간간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만듦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행복, 사회적인 행복,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물론 행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에요. 돈이 많은 것이 가장 행복한 것 아니냐. 난 돈 벌고 싶다. 돈은 왜 벌고싶죠? 돈을 벎으로써 물질적인 삶의 수준을 높여서 행복을 얻고 싶다는 사람들이 앞의 사람들 못지않게, 또는 이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물질적인 삶의 질을 높임으로서 행복을 얻는다. 그것은 우리 인류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의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라고 봅니다. 인간은 영적인 욕구, 사회적인 욕구, 아울러서 물질적인 욕구가 무지무지 큰 그러한 존재입니다. 인간들은 그래서 이러한 물질적인 삶의 향상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물질적 욕구의 충족

인간이 갖고있는 물질적 욕구는 어떻게 충족이 되는가? 이것은 하나의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본다면 자 우리가 더 높은 물질적인 삶을 살게 되면 왜 행복하죠? 그것이 없으면 어땠어요 불편하죠. 집이 작은 집에 살면 굉장히 불편하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서 큰 집으로 이사가면 그 불편함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걸어 다니기만 하면 다리도 아프고 불편할 겁니다. 그렇지만 돈을 많이 벌어 우리가 아주 좋은 차를 사서 운전을 해서 간다면 ? 굉장히 걸어 다녔을 때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물질적인 삶을 해소시킨다는 것은 이러한 물질적인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인간은 불편함을 느껴요. 여러가지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느껴요. 불편함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게 있었으면 좋겠다. 다리가 너무 아프다, 나를 편안하게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필요가 생기죠.

그러면 자동차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자동차를 생산해요. 그리고 생산한 자동차를 또 교환을 해요 . 뭐랑 교환해? 돈이랑 교환하죠. 이런 식으로 생산과 교환을 통해서.. 그럼 자 나는 돈을 갖고있고 생산자는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럼 내가 그 돈을 내고 자동차를 사죠.

그래가지고 그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나를 편안하게 옮겨주는 그 가치를 얻게 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행복하죠. 걸어 다닐 땐 무지하게 불편했는데 자동차로 인해 편안하게 어디론가 가는 욕구가 해소가 되니까 나는 충족이 되고 필요가 충족이 되고 나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때문에 인간은 좀 더 물질적인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 것이죠. 왜? 돈이 없으면 그것을 사지 못했을 거 아니예요? 돈이 있으니 그 편안한 것을 살 수 있었잖아요?

자 불편함을 느꼈고 필요를 느꼈고 그리고 핵심적인, 우리 경제에서 핵심이 뭐냐면 생산하고 그 생산을 교환, 즉 그 생산물을 분배하는 활동, 그 활동으로 인해 우리가 가치를 설득하고 만족을 얻었죠.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 생산과 교환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게 바로

경제문제이죠.

경제의 근본문제

자 이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생산을 할 것인가, 또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또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또 몇개나 생산할 것인가.경제학 교과서를 보면은 맨 처음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죠. 이게 바로 경제의 근본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산을 하면 그 생산된 것들을 분배 해야하죠? 그 분배에 관한 문제,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생산을 하고 분배를 해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을 시켜주고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함에 있어서 과연 생산과 분배를 함에 있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에 우리가 답을 해야한다는 거죠. 생산 해야죠. 근데 누가 할건데. 누가하는게 정해졌다면 뭘 생산할 건데.? 이런 등등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인류가 보다 좋은 해법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경영토크 동영상 화면]

[주간학습 보고서 사례]

▣ 4 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 경영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정의하고 중요성을 탐구한다 ▶ 기업의 윤리적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한다 ▶ 기업의사결정의 윤리성을 평가한다
주차 학습성과	▶ 독서, 강의, 토론을 통한 종합적 분석력과 문제해결 능력 함양 ▶ 기업 경영에 있어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실천방안을 개발하였음

(4)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조성준, 한주희 교수가 제작한 [경영토크] 동영상 2회분 시청	• 참고도서(경영학 두뇌) • 경영토크 동영상	30분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교수자가 강의를 한뒤, 학습 정리 시간을 이용하여 동영상에서 제시한 문제 토론 (무작위로 지정하는 방식)	• 참고도서(경영학 두뇌) • 경영토크 동영상	30분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각자 집에서 주간학습 보고서 작성	• 경영토크 동영상	50분

[경영토크 동영상 대본 (일부)]

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책, 경영학 두뇌를 활용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 해볼까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 7장이겠죠? 7장 주제가 무엇인지 먼저 알려 드릴께요. 7장 주제는 바로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그래서 기업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해 토론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주라고 알고 있는데,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조성준교수님께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 이 책 내용을 보면, 기업의 주인은 누구인가? 한 교수님께서는 누가 기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한: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답은 알고 있지만, 기업에게 투자를 한 주주들이나 아니면 owner 이겠죠?

조: 그렇죠. 우리가 흔히 owner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오늘날 주식으로 구성된 주식회사는 규모가 무지무지 크잖아요? 삼성전자는 기업가치가 거의 수 백조에 달하는 그런 대기업을 만들었는데, 이 대기업을 한명이 그 많은 자본을 소유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여러 명의 주주들이 나누어서 소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owner이다. 그래서 기업의 주인은 주주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리나라의 회사 활동을 규율하는 상법에는 바로 이 주주가 주인이다라고 나와있어요. 제도적으로 보면, 주주가 맞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있지만, 잭웰치라는 굉장히 전설적인 경영자이죠 그 사람이. 미국 사람들한테 당신 경영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부분 잭

웰치라고 답하죠. 그 사람이 지금 일선에서 물러난지 한 20년 이 정도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잭웰치는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경영자 중 한 명이죠. 잭웰치가 사실 내걸었던 것이 뭐냐 하면, 주주 가치를 증대시킨다 이거 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은 결국 주식가치,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것. 그래서 주주들에게 주인에게 많은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 회사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주가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 수익성을 높이고 되도록이면 비용을 줄이고 해야 하잖아요?
한: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조: 그렇죠. 한마디로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목적을 경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가치는 굉장히 많이 수 백배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잭웰치가 주주가치를 증진시키고 주주들은 많은 이득을 얻었는데, 그러면 이제 다 박수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잭웰치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한: 왜일까요?
조: 그 사람 그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남지 않는 사업들은 다 정리를 해야해요. 잘 되는 사업만 집중해서 하게 되니까 어제까지 있었던 사업부가 갑자기 없어지게 되는거죠. 그래서 거기에 속했던 직원들은 전부 해고되는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주주가치가 올라가니까.
한: 충돌이 되겠네요.
조: 그렇죠. 충돌이 되죠.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왜 우리 일자리를 없애느냐 이야기하면, 기업은 주주의 것인데 주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사원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부문을 정리하면서 그 사람들을 전부 해고시키고. 또 한가지, G회사의 ceo였는데 이 회사는 매년마다 성과평가를 해요. 1등부터 꼴등까지 나열해요. 더 무서운 것은 제일 위에 20%에게는 보너스, 칭찬을 줘요. 그 밑에 70%에게는 그냥 아무 변동이 없어요. 그 다음 맨 밑에 10%는 그냥 해고시켜버려요.
한: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네요.
조: 네 그 때 당시에도 말이 안 되는 것 보다도 충격적이죠. 이렇게 하는 곳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매년 10%가 빠지고 그 다음해 10%가 빠져요. 우리 의자 뺏기 놀이 하듯이.
한: 직원들의 스트레스도 너무 극심 했겠어요.
조: 사실 10%는 정말 소수 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나도 거기에 들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고,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했겠죠. 그래서 노동자들, 종업원들한테는 중성자탄 잭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폭탄과 같은 존재였다고 해요.
한: 그러면 이 말의 결론은 기업이 꼭 주주를 위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제가 결론을 내려도 될까요?
조: 그렇습니다. 잭웰치가 더 재밌는 것은 그렇게 해서 주주가치를 많이 올렸잖아요? 그런데 잭웰치가 2009년도에 하나의 글을 발표했는데,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 그런 반성문을. 여태까지 자기 경영은 주주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 경영이고 다른 모든 것은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다시 돌아보니 .. 은퇴한 다음에요, 자기 집에서 산을 바라보며 생각을 해보니 내가 너무했다. 그게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기업은 상법상으로 법률적으로는 주주의 것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나와 자기의 생계, 청춘, 시간을 바치는 많은 종업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업은 그 종업원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고 그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하는데 가기만 하면 불안해서 공포에 떤다면 그게 과연 올바른 경영인가에 대한 반성문을 썼고요. 자기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주주의 이익 물론 중요한데 그것은 기업을 기업을 잘 경영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한: 그러면 우리가 말한 거는 주주의 이해에 종업원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외에도 중요한 주체들이 있을까요?
조: 그렇습니다. 아까 주주, 종업원까지는 이야기했지만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죠. 어떤 회사. 예를 들면 타이어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그 공장을 만들 때 주주가 있을 테고, 자본을 출자한 주주가 있을 테고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이 있는데, 사실은 그 회사의 타이어를 만들면서 여

러 매연이 나올 거죠. 그 매연은 누가 마셔요. 지역사람들이 마시죠. 그 기업이 어떻게 경영하는가 즉 친환경적으로 경영하는가 매연을 내뿜는가가 그 지역주민들에게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또 있어요. 그 주변에 그 기업에 납품을 하는 납품업자가 있겠죠.

[경영토크 동영상 화면]

[주간학습 보고서 사례]

▣ 6 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 개인사업자, 공동기업, 주식회사 등 기업유형의 장단점을 평가한다 ▶ 기업합병, 인수 및 기업담보차입매수의 장단점을 익힌다 ▶ 벤처 초기에 적합한 조직형태를 제안한다
주차 학습성과	▶ 독서, 강의, 토론을 통한 종합적 분석력과 문제해결 능력 함양 ▶ 기업의 형태와 창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학습

(6)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조성준, 전성주 교수가 제작한 [경영토크] 동영상 4회분 시청	• 참고도서(경영학 두뇌) • 경영토크 동영상	30분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교수자가 강의를 한뒤, 학습 정리 시간을 이용하여 동영상에서 제시한 문제 토론 (무작위로 지정하는 방식)	• 참고도서(경영학 두뇌) • 경영토크 동영상	30분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각자 집에서 주간학습 보고서 작성	• 경영토크 동영상	50분

[경영토크 동영상 대본 (일부)]

조: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얘기를 한 번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재무관리가 기업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죠?

전: 제가 보면 재무관리가 제일 필요한 사람은 사실 창업주입니다. 창업주가 창업을 할 때 창업주가 딱 창업을 할 때. 여러분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나는 오랜 꿈이 커피전문점을 여는 것이라면 커피전문점을 열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카페도 꾸며야하고 커피머신도.

조: 몇 억쯤 들겠죠?

전:그렇죠. 몇 천일수도 있고 몇 억 일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 비용을 들여서 내가 미래에 이제 지금 현재에 그 돈은 써야죠. 그러면 그 돈을 미래에 내가 그 비용을

조: 사업이라는 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돈을 벌면서 이렇게 하는 거면 쉬울 수 있는데 돈은 미리 왕창 벌어놓고 돈은 나중에 벌어야 하니까.

전: 그건 미래를 예측을 해야하거든요. 내가 그러면 들어오는 수익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그거를 예측을 좀 해보고 정확하게 숫자로 계량화해서 판단을 할 수 있게..

조: 나중에 커피를 팔아서 벌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고 거기에 맞게 투자를 해야겠네요.

전: 네 그렇죠. 비용을 조절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카페를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카페를 하기로 했다. 1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1억은 어떻게 조달 할거냐 이거예요. 내가 10년 15년 저금을 열심히 해서 1억이 있다. 그러면 내 돈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항상 싼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은행에 가서 3000만원, 4000만원정도를 빌려서 그렇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은가, 그리고 최적의 . 1억의 투자비용 중 얼마를 내가 대출을 받을 건가 이런 것
조: 어떻게 자본을 조달 할거냐. 그러면 자금을 조달할 때에는 공짜로 주는 게 아닐 테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비용이 있고, 또 그러면 그 비용과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과 이런 것들을 또 따져서 해봐야겠네요.
전: 심지어는 자기가 저축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도 비용이 있거든요. 기회비용이죠.
조: 그렇죠 그거를 다른 데에 썼으면.
전: 예를 들어 그냥 은행가서 저축을 하면 확실하게 이자가 나올 텐데 이거는 알 수 없는 사업 이잖아요.
조: 그러면 이제 여러가지 대안들을 한번 그러면 비용을 계산하고 최적의 대안을 의사결정하는 그런 분야라고
전: 네네 그런 분야라고 보면 됩니다.
조: 커피숍같은 것은 작은 규모지만 큰 삼성전자나
전: 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고
조: 조달과 운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니예요? 굉장히 전문적인.
전: 네 전문적입니다.
조: 창업을 할 때에는 그렇고, 그러고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사실은 자금운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 그렇죠 특히 이제 제가 앞에서 이야기 한 것은 장기적인 투자에 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설립을 하고 나면, 매일매일 운용을 해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는 얼마나 사 놓을 것이며, 내가 예측하는 게 또 있을 테고 그러면 이제 또. 내가 예를 들어 대출을 했다고 하면 그 돈을 또 매달 갚아나가야 하는데 그 돈 갚아 나가기 위해서 얼마를 또 따로 현금으로 보관할 것이냐
조: 그거 못갚으면 부도 나는거니까.
전: 네 은행에서 빌렸던거면. 그런 것도 생각을 마지막으로 하는 거죠.
조: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까 사업할 때는 인적자원이 중요하고 이렇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인적자원이 됐든 마케팅이 됐든 생산이 됐든 모든 경영활동의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다 돈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도 돈이 들고 마케팅도 그렇고 다 돈이 드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다 재무적 의사결정하고 좀 연결이 되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전: 네네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재무적인 의사결정이 밑에 바탕이 되어야지, 물론 이제 성과를 내는 부분은 기업이 운영되고 할 때, 조직에서는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성과가 어떤 좋은 성과를 내느냐 나쁜 성과를 내느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데
조: 문화라든지 뭐 여러가지 그런게 분위기라든지
전: 네 재무관리는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도 딱딱하지만,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주춧돌?
조: 돈은 감정이 없으니까. 돈은 그런 면에서는 정직하잖아요?
전:그렇죠
조: 그래서 이제 사실 기업에서 사장이 있고, 사장 밑에 각 분야별로 임원이 있는데, 우리 그 재무관리 임원을 CFO라고
전: 예 CFO라고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창업주예요. 소유주이면서 직원도 몇명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경영토크 동영상 화면]

[주간학습 보고서 사례]

▣ 10 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 운영관리를 정의하고 운영과 제조를 구분한다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운영관리 차이를 이해한다 ▶ 운영관리에서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불량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학습한다
주차 학습성과	▶ 독서, 강의, 토론을 통한 종합적 분석력과 문제해결 능력 함양 ▶ 생산 운영관리의 전반적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품질경영을 위한 기법들을 학습할 수 있었음

(10)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조성준, 전성민 교수가 제작한 [경영토크] 동영상 7회분 시청	• 참고도서(경영학 두뇌) • 경영토크 동영상	30분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교수자가 강의를 한뒤, 학습 정리 시간을 이용하여 동영상에서 제시한 문제 토론 (무작위로 지정하는 방식)	• 참고도서(경영학 두뇌) • 경영토크 동영상	30분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각자 집에서 주간학습 보고서 작성	• 경영토크 동영상	50분

[경영토크 동영상 대본 (일부)]

조 : 자, 그럼 이제 우리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 오늘 우리 전교수님하고 나눌 내용이 생산운영 관리와 경영정보 라는 건데요. 그. 조금 생소한 학생들도 있을 테니까 좀 이게 어떤 분야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전 : 예. 알겠습니다. 생산운영관리라는 과목은 영어로 operation management.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과목은 사실 아주 오래된 과목입니다. 그니까 경영학 안에 여러 과목들이 있죠. 뭐 경영과학이라든지 파이낸스, 마케팅, 경영전략, 경영정보, e-비지니스 여러 과목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생산운영관리는 사실 경영학의 시작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아 1900년대 초 20세기 초반에 이제 미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크게 생산성이 올라가는 그 시점에 책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책을 들고 왔습니다.

조 : 아, 그러세요?

전 : Fredrick Taylor가 쓴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조 : 과학적 관리법. 예.

전 : 책인데요. 이 책.

조 :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아닙니까?
전 : 예. 맞습니다. 이 책이야 말로 이 경영학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 The principles of scientific management.
조 : 과학적 관리라고 하죠.
전 : 예. 이름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scientific management.
조 : 어우. 굉장히 어려울 거 같아요.
전 : 그러나 사실. 어.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안을 보면 공장에서 삽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조 : 과학. 과학이라고 하는데.
전 : 그래서 제가 강의시간에 농담을 많이 하는데 경영학이란 삽질관리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책은 아주 책이 1911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조 : 100년도 넘은 책이네요.
전성님 : 100년도 넘은 책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근데 이 책의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소개를 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테일러라는 사람은 이제 경영학을 만든 사람이고 우리가 왜 이 사람을 조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 : 네. 아버지니까.
전 : 네. 마치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처럼 경영학의 아버지로서 이 테일러 라는 분은 그 하버드 법대에 이제 어드미션을 받았어요.
조 : 아 법대에?
전 : 예. 법대에 법학 공부를 원래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근데 뭐 이런 저런 이유로 법대를 다니지 못하고 공장에 가서 취직을 합니다.
조 : 아니, 하버드 법대면 최고 수재들이 가는 학곤데.
전 : 그렇죠. 예.
조 : 그거를 마치지 못하고 공장을 갔다고요?
전 : 예예.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공장에 가게 됐는데
조 : 집에서 걱정을 많이 했겠네. 그 양반.
전 : 그래서 이제 공장에 갔는데 이제 공장에 가서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경영자들 하고 노동자들 사이의 이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자들은 노동자들이 시급을 당시엔 월급개념이 아니라
조 : 일한 시간만큼.
전 : 네네. 시간당 돈을 줬는데. 그 돈을 다 빼먹는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제 못 미더워하고
조 : 시간만 때우면 되니까.
전 : 예.예. 반면에 노동자들은 경영자들이 돈은 조금 주고 일은 막 시킨다.
조 : 착취한다.
전 : 네. 착취한다. 그래서 자본가가 착취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두 세력간에 큰 대립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상 공장의 현장에 가보니까 많은 노동자들이 태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설렁설렁 일하고
조 : 시간만 때우자.
전 : 예예. 돈을 받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 이분이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걸 제시했다고 했잖아요. 이 과학적 관리법 이라는게 다른 게 아니라 이 표준작업량 같은 걸 설정해가지고 이거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를 만들어 냅니다.
조 :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시간에 10개 이상을 만들면 인센티브를 준다. 그런거.
전 : : 예.예. 그래서 이제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타이틀이 아주 거창하게 붙어있는데요. 사실 별게 아니고 가서 잘 관찰해서 표준적으로 아 이정도의 체격에 있는 사람들이 이만큼 삽질하면 이 만큼 일할 수 있다라는 걸 정해놓고 그거보다 더 많이 한 사람한테는 월급을 뭐.

조 : 인센티브.
전 : 훨씬 더 많이 주는 이런.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2배까지는 아니고 한 60%정도의 월급을 더 줬는데요.
조 : 그래도 상당히 뭐. 그 동기부여가 되겠네요.
전 : 예. 근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생산성이 4배가 올랐어요.
조 : 역시 사람은 돈에 약한 것 같아요. 그죠?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전 : 그래서 이제 이 테일러가 이 두 세력의 아주 큰 갈등관계에 있던 거를 경영자는 이제 회사의 생산성이 올라가서.
조 : 생산성이 4배나 올라가니까.
전 : 돈을 벌고 노동자도 월급이 2배 올라가니까 돈을 더 벌어서.
조 : 일은 더 해야 되지만은 돈은 많이 받으니까 나름 또 행복해지는 모양이죠.

[경영토크 동영상 화면]

[주간학습 보고서 사례]

▣ 11 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인적자원의 모집, 선발, 훈련, 보상의 싸이클을 이해한다 ▶ 이직의 방지가 조직에 중요한 이유를 이해한다
주차 학습성과	▶ 독서, 강의, 토론을 통한 종합적 분석력과 문제해결 능력 함양 ▶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적자원관리의 각 기능과 역할을 이해한다

(11)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조성준, 권병옥 교수가 제작한 [경영토크] 동영상 8회분 시청	• 참고도서(경영학 두뇌) • 경영토크 동영상	30분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교수자가 강의를 한뒤, 학습 정리 시간을 이용하여 동영상에서 제시한 문제 토론 (무작위로 지정하는 방식)	• 참고도서(경영학 두뇌) • 경영토크 동영상	30분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각자 집에서 주간학습 보고서 작성	• 경영토크 동영상	50분

[경영토크 동영상 대본 (일부)]

조 : 네네. 예 그러면은 하여튼. 어 이렇게 권교수님 소개를 했구요. 오늘 저희가 좀 나눌 얘기는 인적자원 관리 분야에 대해서 할텐데 어 저희 김병도 교수님 그 책에서 챕터 3개를 선택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려고 하는데요. 어 먼저 처음에 36번 주제. 동적조립라인이란게 제목인데 동적조립라인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권 : 그게 이제 어셈블린 라인을 그렇게 번역을 한거 같구요.

조 : 조립라인이라고 하면 될까요?

권 : 네네. 그래서이제 요즘에는 많이 흔해졌습니다. 어떤 공장에 가더라도 그런 컨베이벨트를 통해서

조 : 컨베이어 벨트라는게 이제 뭐 부품같은 거 이동시키는 거죠?

권 : 네. 벨트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공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정이 사람을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자재가 예를 들어서 첫번째 벨트의 맨 앞에서 온다고 하면 일정기간동안 이제 어떤 공정을 사람이 남다르게 처리하고

조 : 수행하고..예.

권 :기계와 함께 처리하고 그다음에 그게 다른 공정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공정을 처리하고 이런게 이제 컨베이어벨트인데요.

조 : 그렇군요.
권 : 네네.
조 : 그럼 왜 그런 것을 도입을 했죠?
권 : 어.. 이제.. 그 뭐 이제 자동차 예에서를 보면 교재에 보면 모델 T가 나오는데요.
조 : T. 예예.
권 : 그게 인제 자동차를 누가 발명했느냐 그런거 보다 결국 자동차를 누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수 있는 그런 재화로 만들었느냐
조 : 그게 이제 헨리포드죠?
권 : 네네. 그래서 이제보통 처음 만들어진 자동차 모델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제 포드가 대량생산에 성공한 모델 T를 대체로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모델T가 가능하게 했던 것이 이제 그런 어쎔블리 라인을 통한 생산성 절감 그걸 통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일반인, 많은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그런 제품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조 :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차를 소유할수 있게 되는 마이카의 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권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조 : 그 컨베이어벨트를 쓰면은 왜 원가가 낮아지나요?
권 : 어 이제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똑같은 컨베이어벨트를 원리를 이용해서 제가 조립라인으 은 아니지만 그 이 서비스가 고객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 쯤 가보셨을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회전초밥집이 있습니다.
조 : 회전초밥집. 아 그거 컨베이어벨트네.
권 : 컨베이어벨트인데요.그래서 만약에 회전초밥집에서 컨베이어벨트 없이 똑같은 서비스를 구현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종업원이 와서 주문을 받아야겠죠.
조 : 그쵸. 그때그때 와야겠죠.
권 : 그렇습니다 .굉장히 자주 와서 주문을 받아야 되고요. 그 주문이 주방으로 들어가서 만드시는 분이 그거에 따라서 그때 그때 만들어야 되구요.
조 : 그렇죠 그렇죠.
권 :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컨베이어벨트를 통해서 주문자가 필요 없고요.
조 : 아 그렇지 . 그 스시집 가면은 회전초밥. 거기 가면은 물 갖다 주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쵸? 그 사람 한 분밖에 없어.
권 : 물도 안 주는 거 같은데요? 제가 갔던 곳은..
조 : 아 물도 안 주나요? 대부분 먹는 것이 다 돌아댕기니까 그런 그래서 그 회전초밥집을 싸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되는군요.
권 :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많은 그 비용을 들여서 구현할 가치가 그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보다 그 어포더블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가 있는거죠. 그런 예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조 : 뭐 우리 생활에서도 진짜 그 생각지도 못했던 그 정말 옛 네고드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이고그 우리 도축장같은데 가면은 이렇게 소, 돼지 이렇게 걸어둔 쭉 약간 좀 끔찍하긴 하지만 이렇게 쭉 돌아가는 거 그런것도 컨베이어 벨트라고 볼 수 있는거잖아요. 소가 쭉 가면은 필요한 부분 떼어네고 또 다음으로 이동하고 뭐이런 거죠. 네
권병옥 : 생산성을 결국 이제 높이는 거니까 컨베이어벨트는 이제 그 제조업에서 구현되는 방식이구요. 꼭 그게 컨베이어밸트를 통해서 생산성이 이제 높아져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거 낮출 필요가있는건 아니죠. 뭐. 잘아시겠지만 요즘에 거의 모든 그 패스트푸드점이
조 : 패스트푸드.. 예..
권 : 주문이 다 자동화되고 있구요.
조 :아 맞아요 .맥도날드 같은데 가도 사람이 주문하면 막 그 다음에 키오스크에서 눌러가지고 하더라고요.

권 : 맞습니다 .거의 모든 리테일에서 캐쉬화가 자동화되고 있구요.
조 :그쵸. 예.
권병옥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 : 그 자기가 직접 계산하는 뭐 계산대가 따로 있고 하더라고
권 : 네네. 일본에 가면 라면집 앞에 자판기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조 : 그 게 뭐에요? 라면 자판기?
권 : 네 본인이 원하는 라면을 고르고요. 돈을 집어넣으면 주문표가 떨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가게 안에 들어가서 이걸? 내고
조 : 네. 아
권 : 그러면이제 에 키친에서 만들어주는데 그러면 이제 서버가 하나도 없는거죠. 주문을 받는
조 : 그러니까 주방장만 있고 서빙하는 사람은..
권 : 네네.
조 : 그런 방식으로 인건비를 절감 하는거군요.

[경영토크 동영상 화면]

[주간학습 보고서 사례]

▣ 13 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 회계를 정의하고 회계정보의 다양한 용도를 이해한다 ▶ 회계정보의 수집과 작성과정을 이해한다 ▶ 회계보고서와 비율분석을 통해 기업의 재무적 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주차 학습성과	▶ 독서, 강의, 토론을 통한 종합적 분석력과 문제해결 능력 함양 ▶ 회계의 필요성과 재무제표의 내용과 구조를 이해할 수 있었음

(13)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조성준, 송보미 교수가 제작한 [경영토크] 동영상 10회분 시청	• 참고도서(경영학 두뇌) • 경영토크 동영상	30분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교수자가 강의를 한뒤, 학습 정리 시간을 이용하여 동영상에서 제시한 문제 토론 (무작위로 지정하는 방식)	• 참고도서(경영학 두뇌) • 경영토크 동영상	30분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기말고사 관계로 별도의 사후학습을 실시하지 않음		

[경영토크 동영상 대본 (일부)]

조 : 저희 책의 회계와 재무제표라는 장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단 회계라는게 어떤겁니까?
송 : 회계라는 개념을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요, 그 기업은 정말 많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관계속에서 경영을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에게 정말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요구를 합니다. 또 다양한 내용이 담긴 정보를 요구하는데요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정보를 요구하다 보니 이제 보통 회계사들은 정보이용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정보이용자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정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회계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그 목표가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보이용자들은 기업이 이윤을 제대로 창출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나 아니면 현금흐름의 변동등을 파악하기에 가장 좋은 정보를 보통 요구를 많이 하는데요 이 정보를 제공하기에 있어서 그래서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이용자들은 기업이 작성하고 공시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기업의 실적을 분석하게 되는데요 이 때 이 재무제표가 하늘에서 딱 떨어지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조 : 누군가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송 : 그렇죠 그렇죠. 기업들이 그 내부에서 담당자 회계담당자, 경영진들이 같이 이렇게 회계의 장부를 작성하고 검토한 후에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재무제표를 작성하기에 앞서서 있는 단계들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일단 기업의 다양한 경영활동 또는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
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영활동이나 경제적사건이나 거래들을 일단 하나 하나씩 담당자들이 분석을 해서 이 거래나 사건이 회계거래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래가 회계거래라고 판단이 되면, 그 거래는 이제 회계장부에 기록이 되죠.
그래서 그 거래의 내용들을 화폐단위로 측정을 해서 회사 장부에 반영이 되면 그 반영된 자료들을 모아서 그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에 보고하고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계거래인지 아닌지 식별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화폐단위로 측정하고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여서 정보이용자들한테 전달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하나의 정보시스템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이 정보시스템이 회계가 기업의 언어인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있어서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기업의 경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하실 땨는 경영진도 마찬가지이고 이 회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 : 네 그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핵심적으로 우리가 요약을 해본다면, 기업에 있는 활동을 갖다가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 회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회계장부 속에는 그 기업의 경영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송 : 네 계량화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거의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 : 그러니까 이 회계가 사실은 우리 경영학인 여러 분야로 나뉘어져있는데 그 여러 분야를 어떻게 보면 다 종합하는 종합 경영학이네요? 오 굉장히 재밌고, 좋은 학문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회계하면 흔히 재무회계다 관리회계 이런 게 있는데, 회계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송 : 여러분들에게 이제 회계 종류를 설명드릴 때요. 정보이용자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정보이용자들은 크게 기업의 외부정보이용자들 그리고 내부이용자들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외부정보이용자들은 기업의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정보 이용자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조 : 예를 들면 투자자라던지 은행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죠?
송 : 네 대표적인 예로는 방금 조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식 투자자, 채권투자자, 아니면 은행과 같은 채권자나 아니면 금융기관도 포함되는데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을 이렇게 또 매겨야 되기 때문에 신용평가자도 외부정보이용자가 되고요
또 기업의 실적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애널리스트들도 대표적인 외부이용자들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또한 정부역시 기업에 대한 활동을 감시하고 세금을 적절히 냈는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필요로 하다 보니까 정부기관도 기업의 외부정보 이용자들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기업의 외부정보이용자들을 위해서 작성하는 재무제표와 관련 되서 회계가 등장했는데, 이와 관련된 회계를 여러분들 재무회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외부정보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객관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원칙이 준수가 되어야 합니다.
회계원칙이 명확하게 있어야 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회계활동을 다 수집해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되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회계원칙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한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조 : 그 아까 일반적으로 합의된 회계원칙이라는 게 이제 나라별로 다 틀린 거 아닌가요?
송 : 네 원래 우리나라도 2011년 이전까지는 한국에서 개발한 K-GAPP 이라는 Korea GAPP이라는 그 한국에서…
조 : 그게 Generally Accepted Principles
송 :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이에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따라서 재무제표들을 작성하게끔 해왔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2011년도부터는 자국이 개방되었기 때문에 다른 국제기업들과 투자기업들과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들의 실적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좀 원활하게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는 국제기준을 회계기준으로 도입해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 : 그러면 이제 2011년 이전에는 만약에 우리 외국투자자가 한국회사에 투자를 하려면 재무정보를 보려면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고 그랬겠네요?
송 : 네 그래서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었을 거 같습니다.

[경영토크 동영상 화면]

3. 수업 성찰

수업 운영 과정에 대한 성찰 (자유기술)
▶ 동영상 자료를 수업에서 활용함으로써 영상세대의 학습에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됨 ▶ 특히 기존의 강의위주의 동영상이 아니라, 가벼운 대담형태로 제작함으로써 좀더 편안하고 재미있게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었음 ▶ 전반적으로 경영학을 처음 접하는 1학년 학생들이 추후 경영학을 공부하는데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전공 심화학습의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었음 ▶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반응은 좋은 편이었으나, 매주 숙제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부담감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있었음
수업 운영 결과에 대한 성찰(총평 포함) (자유기술)
▶ 동영상을 활용하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학습 성취도와 몰입도가 높았던 것으로 평가됨 ▶ 동영상의 조회수를 볼 때 수강생들의 반복학습이 확인됨. 이는 텍스트 위주의 교재에 비해 훨씬 몰입도가 높았음을 반영하는 것임 ▶ [경영토크]의 사례는 교육혁신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시냅스 포럼에서도 우수 사례로 소개되어 많은 관심을 받음
향후 교과목 개선 방안 (자유기술)
▶ 향후 글로벌경영학과의 다른 강좌에도 적용예정이며, 경영학 뿐 아니라 타 학과와 전공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여겨짐 ▶ [경영토크]의 성공사례에 힘입어, 현재 동영상 제작에 참여했던 교수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개념의 경영학 입문 교재를 집필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수업의 주교재로 채택함으로써 동영상과 텍스트 간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임 ▶ [경영토크]의 사례는 교외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으며, 현재 한 이러닝 업체와 함께 일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영토크를 제작하고 있음-이 결과물을 수업에서 활용할 예정임